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48009-200000171422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

옷장을 통한 일상과의 소통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Communication With Daily Life through Wardrobe.
-Based on my art works-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미 술 학 과
조 은 정

옷장을 통한 일상과의 소통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인 자

이 논문을 조은정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미 술 학 과
조 은 정

조은정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인 자 인
심사위원 임 영 재 인
심사위원 하 원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18년 12월

국문 초록

일상생활에서 옷이라는 개체는 단순한 물건의 의미를 벗어나 나와 같이 생활하며 추억이 생긴다. 개개인마다 그 일상이 다르고 추억도 다르다. 옷이 가지고 있는 다름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잠시나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대하는 옷이라는 물건은 사고 입을 때와 그 옷이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추억이 생긴다고 생각되어 옷걸이에 걸린 옷이나 옷장 속에 넣어진 옷으로 개개인의 일상을 연구하고 표현하였다.

또한, 옷장 속에 개어져 있거나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에 대해 다양한 구도로 접근하였으며 저마다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가지고 있는 옷들을 동양화의 전통 채색 기법으로 쌓아 올린 다음 다각도로 옷의 형태에 맞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옷을 통해 나의 일상을 잘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생각 하고자 한다.

목 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2
1. 옷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2. 옷이 갖는 예술적 의미
3. 옷장에서 발견한 나의 일상과 표현

Ⅲ. 결론 ····· 3

참고문헌 ····· 4

도판목록 ····· 5

본인도판 ····· 6

Ⅰ. 서론

본인의 옷에 대한 일상과 추억을 함축시켜 그림으로 나타냈다. 본인의 옷장을 표현하여 그림에 표현한 이미지에 자신의 일상과 추억을 담아 관객과 소통 할 수 있길 바란다.

옷은 함축된 본인의 이야기로 표현되어야 하기에 재구성도 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그림에서 일상 그대로 이미지화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작품마다 옷이 걸려져 있는 것과 접어서 쌓인 것이 있다. 옷 뿐만이 아닌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일상과 추억을 알아가는 재미까지 표현해 보려고 한다.

본인은 이러한 것에서 꼭 옷이라는 주제만이 내용을 다 담는 것이 아닌 옷장이나 모자 등 도 관람자에게 소통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Ⅱ. 본론

1. 옷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옷은 사고 입고 버리면 끝 일까? 사전적으로 옷이라는 단어는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가죽이나 천 등으로 만들어 입는 물건이다. 하지만 물건에서 그치지 않고 옷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문화인류학자인 마샬 살린스 (Marshall sahlins) 는 옷을 분석했다. 색채(밝은가 어두운가), 색조(선명한가, 흐릿한가), 손에 닿는 감촉(거친가, 부드러운가), 방향성(수직인가, 수평인가), 선(곧은가, 굽었는가)등이 요소에 따라 성별, 연령, 라이프 스타일, 등의 문화적 특징이 옷에 나타나 있으며, 또 한 무의식중에 행해진다고 주장했다.(1) 이렇듯 보았을 때 우리에게 옷은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뤼겔 (J.C.flügel)을 비롯해 최근 앨리슨 루리 (Alison Lurie) 까지 소비자의 행동과 심리에는 다른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요컨대 인간은 옷을 구입하고, 몸에 걸치려 하며, 자신의 심리 상태를 말이나 옷이라는 스타일을 빌어서 육체의 겉모습에 나타낸다는 것이다. 몸을 감추거나 타인과의 차이를 강조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고, 상품에 경제적인 가치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보여준다.(2)

---

(1) 조안 핑켈슈타인 저, 김대웅,김여경 역,『패션의 유혹』, 패션을 말한다, p.58

(2) 위의 책, p.21

경제활동, 사회적 도덕이나 미의식이나 심리를 만들어내는 옷의 다

양한 영향력을 감안해볼 때 옷은 신체 장식과 역사, 경제 효과, 도시 경험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 옷을 사고 입고 버리기 만 으로 그쳐지는 단순행위가 아닌 것이다.(3)

본인은 옷장에 옷들이 물건으로서의 의미를 벗어나 사회적 삶과 자신의 삶 등 많은 의미를 나타내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본인의 그림에 매개체로 표현해서 다른 이 와 소통을 하고자 하였다.

---

(3) 이민정 저, 이정원 역,『옷장에서 나온 인문학』, 옷,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p.237

2.옷의 예술적 의미

옷은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다. 과거에는 옷이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 기능성이나 어떤 특정 목적으로 가지고 생산 되었다면 현재에는 상의, 하의, 원피스 등 여러 형태와 재질이 다양해 졌다. 여러 형태의 옷에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문화의 요소를 반영하기도 한다. 새로운 옷이 생산되기 보단 현대사회의 아이콘(ICON) 적 역할이 중요시 되어, 옷의 상품가치와 개인의 감성적 가치까지 고려된 옷이 생산되고 있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본인은 현대인들의 일상 속 옷을 통해 옷의 시각적, 기능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감성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옷은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쓸쓸한 기억 등 추억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상 속의 옷은 과거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이다. 이러한 개념의 옷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여 본인의 감성적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자신의 옷을 예시로 삼아서 일상과 추억을 나타내 관람자의 개성과 일상, 추억의 다름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 시도이다.

3. 옷장에서 발견한 나의 작품 표현

작품을 제작을 할 때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기 위해 본인의 옷의 모습으로 표현 하였다. 옷을 그려 넣고 공간감을 주기 위해 빈 여백을 남겨서 나타내고 동양화의 분채를 사용하여 중첩기법으로 쌓아 올려 채색하였다. 그위에 먹을 이용하여 먹 특유의 농담 변화를 주어 다양한 옷의 재질감을 표현하였다.(4)

본인의 그림에 색은 심상을 담으려고 하였다. 본인 또한 단순한 재현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옷에 대해 주관적인 해석과 감성, 정감과 같은 내면의 감정을 대상에 부여하여 작품을 진행 하였다.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다각도로 옷을 구상하려고 하고 옷의 형태와 심상에 맞게 표현하게 노력할 것이다.(5)

---

(4) Aniela Jaffe(1985),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서울:열화당, p.58

(5) Guila Ballas(2002),「현대미술과 색채」, 한택수 역. 서울:궁리출판사 , p.233

Ⅲ. 결론

옷을 사고 입는 것과 그 옷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일상과 추억이 생긴다. 옷걸이에 걸린 옷이나 옷장에 넣어진 옷으로 본인의 일상을 연구하고 표현하였다.

옷장 속에 개어져 있거나 옷걸이에 걸려있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구도로 접근하였으며 저마다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옷들을 동양화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으로 쌓아 올려서 다양한 옷의 질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작품연구 논문을 통하여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옷에 대한 경험을 추억하고 새로운 공간에 재구성한 표현으로서의 옷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인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한 결과물을 발판으로 재료와, 기법, 작품 의표현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 발전하고 옷으로 소통 하기를 원한다.

도판목록

<작품 1> 머고르지? 162cm x 130.1 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2> 나 여기 있어! 162cm x 130.1 cm장지에 채색, 2018

<작품 3> 옷만 거는 게 아니지 70cm x 130 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4> 가방은 나열해야 제 맛! 50cm x 130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5> 스탠드는 옷걸이 50cm x 130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6> 모자랑 가방 50cm x 130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7> 아끼는 모자는 특별대우 72.7cm x 60.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8> 모자가 알록달록 45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9> 조카의 침범 후 폭풍 37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0> 취향을 알 수 없어 45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1> 바지 고르기 어렵다 45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2> 바지 고르기 어렵다 45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3> 바지 고르기 어렵다 45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4> 옷 정리 좀 하자 37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5> 옷 정리 좀 하자 37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6> 옷 정리 좀 하자 37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7> 옷 정리 좀 하자 37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 머 고르지?,162cm x 130.1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2> 나 여기 있어!,162cm x 130.1 cm장지에 채색, 2018

<작품 3> 옷만 거는 게 아니지,70cm x 130 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4> 가방은 나열해야 제 맛!,50cm x 130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5> 스탠드는 옷걸이, 50cm x 130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6> 모자랑 가방, 50cm x 130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7> 아끼는 모자들 72.7cm x60.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8> 모자가 알록달록 45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9>　조카의 침범 후 폭풍 37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0> 취향을 알 수 없어 45cm x 45cm 장지에 채색,2018

<작품 11> 바지 고르기 어렵다 45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2> 바지 고르기 어렵다 45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3> 바지 고르기 어렵다 45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4> 옷 정리 좀 하자 37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5> 옷 정리 좀 하자 37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6> 옷 정리 좀 하자 37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7> 옷 정리 좀 하자 37cm x 45cm 장지에 채색, 2018

참고문헌

정병모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주) 기운센 , 2011

임두빈 ,『한국의 민화 4: 이야기, 책거리 그림 외』서문당 , 1993

손경숙 ,『동양회화의 재료와 기법』, 이담북스 , 2010

조안 핑켈슈타인 ,『패션의 유혹』, 2005

이민정 ,『옷장에서 나온 인문학』도서출판 들녘 , 2014

Aniela Jaffe(1985),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서울:열화당, p.58

Guila Ballas(2002),「현대미술과 색채」, 한택수 역. 서울:궁리출판사 , p.233

손해진(2011). 대중 소비상품을 통한 내적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In everyday life, clothes leave the meaning of simple things and live with me, and memories are created. Each person has different life and different memories. I want to create a communication space where I can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the differences in clothes and talk while laughing for a while.

The clothes that we usually deal with are thought to have memories in the process of buying and organizing, so we studied and expressed our daily lives as clothes that are hung on the clothes rack or put into the closet.

In addition, we approach various schemes through clothing in hangers or hangers, and we tried to build clothes that have various shapes and colors by using superposition technique of oriental paintings and express them according to the shape of clothes.

Through this thesis, I would like to think about how to express my daily life through clothes by remembering and communicating clothes experience in daily life of individual.